



허정무 시민구단 '인천' 지휘봉 잡나

허감독 결정된 것 없지만 현장복귀 고민중

구단선 적극적... 광주FC 영입추진 물거품

일이겠는가?"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을 허 감독이 결정할 문제"라며 허 감독이 칼자 루를 훤 상황임을 전했다.

시민구단 사장 첫 코스다 상장과 히딩크 축구센터 건립 등 사업을 진행 중인 인천시도 축구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허정무 카드'가 적지 않은 힘을 것으로 기대하고 허 감독의 영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다면 살립이 넉넉지 않은 시민구단 인천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허정무 감독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허 감독은 월드컵 이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감독 자리가 빙 K-리그 팀들의 차기 사령탑으로 졸골 거론됐다. 심지어는 내년 시즌 K-리그 카드가 적지 않은 힘을 것으로 기대하고 허 감독의 영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 감독은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은 축하할 일이지만 감독 영입에 대한 얘

기를 들은 적도 없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K-리그에서 6승1무9패(승점 19)로 9위에 올라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천은 세르비아 출신 일리야 페트코비치 감독이 부인 병간호를 이유로 지난 6월 자진해서 사퇴해 김봉길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팀이 운영되고 있다.

구단은 일단 올 시즌을 김봉길 코치 체제로 마무리할 생각이었지만, 허정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길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분위기다. 허 감독은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도권 팀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축구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놓은 허정무(55)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가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사령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허정무 전 감독은 18일 "인천에서 감독직을 제의받았는 했다. 하지만 아직 답변은 못 해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 전 감독은 또 "남아공 월드컵을 마치고 쉬면서 대회도 복기하고 선진 축구도 돌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위에서 거취와 관련해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 '다시 일을 해 보자'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에 복귀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마찬가지로 인천 구단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다면 안중복 인천 사장은 "대표팀을 맡았던 지도자가 우리 팀에 온다면 얼마나 좋은

박주영 또 골대 불운

몽펠리에전 0대0 무승부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 소속의 박주영(25)이 두 경기 연속 후반 90분을 모두 뛰었으나 공격 포인트를 몰리지 못했다.

박주영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의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10-2011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라운드 몽펠리에와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주영은 초반부터 활발한 몸놀림을 보였으나 끝내 상대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전반 7분 몽펠리에의 에미르 스파히치와 공동볼을 타투다 팔꿈치에 엉클 부위를 맞아 페널티 지역 바로 바깥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22분에는 비슷한 지점에서 스파히치의 헨드볼 반칙을 끌어내기도 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전반 26분에 나왔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공을 받아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상대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에도 박주영은 결정적인 장면을 몇 차례 연출해냈다.

후반 12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에 걸어차이면서 쓰러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듯했지만 심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1분 뒤에는 피에르 애메리가 앞쪽으로 뛰어준 패스를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지만 오른발로 툭 건드린 공이 골키퍼에 막혔다.

박주영의 다음 경기는 22일 오전 2시 RC 렌과 시즌 3라운드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의 박주영(오른쪽 두 번째)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모나코의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10-2011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라운드 몽펠리에와 경기에서 결정적인 헤딩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전남제일고 수구 시즌 2연패

회장배 이어 대통령배 우승

중등부 김민웅 수영 2관왕

전남제일고 수구팀이 대통령배 전국수영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제일고는 18일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수구 결승에서 낙적 경기체고를 13-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일 회장배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전남제일고는 이날 승리로 시즌 2연패를 달성했다.

일반부에 출전한 전남수영연맹 수구팀은 결승에서 인천체육회에 5-6로 아깝게 패배,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회 3일째인 이날 전남의 2관왕도 탄생했다.

목포 하당중 김민웅(3년)은 남자 중등부 접영 50m에서 26초11의 대회신기록으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접영 100m에서도 1위로 끌인하며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웅은 지난 14일 폐막한 전국소년체전에서도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수영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 선수단은 남자 고등부 개인영 200m에 출전한 서승훈(전남제일고 2년)과 배영 50m의 김병준(전남제일고 1년)의 동메달을 더해 이날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19일 막을 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우)과 페널티 지역 안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가 겨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영(우)이 페널티 지역에서 몽펠리에의 벤자민 스텁볼리에(좌)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